딜타이 사상에서 칸트 철학의 이해와 수용

- 칸트의 『판단력 비판』과 딜타이의 정신과학을 중심으로 -

손세훈*

<차 례>

1. 들어가며
2. 칸트 『판단력 비판』과 독일관념론의 세계체계 인식
3. 딜타이의 칸트 목적론 수용과 극복
4. 나오며 - 새로운 해석학으로의 이어짐들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딜타이가 칸트의 자연철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정신과학의 영역으로 자신의 해석학을 발전시켜 나갈 때 그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칸트는 판단의 가능성의 조건들에 대한 선험철학적 물음들을 주제화한다. 판단력은 지성과 이성 사이에 있는 중간 능력으로, 사물을 합목적성에 따라 판단하는 능력이다. 자연과 인간의 합목적적 관계는 실천적 행위의 결과물이며, 따라서 판단력에 바탕을 둔 해석학은 우리 삶에서

* 건국대, 조선대 시간강사

핵심적인 것을 발견하고 동시에 학문에 본질적 세계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칸트 철학은 보편적인 것과 특수한 것을 판단의 대립에서 이끌어 낸다. 주관성이나 객관성과 같이 보편성과 특수성의 개념을 칸트는 서로 대립적인 개념들의 관계를 결정하는 관계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해석학적 순환의 개념과도 일치한다. 동시에 칸트는 자연관찰과 관련된 목적론적 판단에서도 보편성과 특수성의 개념을 사용한다. 판단력은 단지 미적 판단의 도구만이 아니라 특수한 것을 보편적인 것과 구분하거나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개별적인 것은 구체적인 개체성을 가질 수 있다. 전형적인 개체 개념은 부분으로 제한된 대립관계에서 통일성의 연속으로 표현된 총체성을 전제하는데, 이는 딜타이가 말하는 자의식을 강조한 정신과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주제어: 칸트, 딜타이, 헤겔, 셸링, 자연철학, 총체성, 해석학, 보편, 특수, 유기체, 유기론

1. 들어가며

칸트의 목적론적 판단에 대한 비판은 과학의 발생에 대한 방법론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딜타이의 정신과학에로 이어진다.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 따르면 모든 이론은 세계인식이라는 사고의 형식을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선험철학[1]이 가지는 학문적

1) Dilthey, *Die geistige Welt. Einleitung in die Philosophie des Lebens*, GS

체계의 발판은 세계인식이라는 총체성의 영역까지를 포괄한다. 칸트가 정의한 반성적 판단력이 가지고 있는 미적 사고는 전체에 대한 관심을 담고 있으며, 전체의 형성과 발전을 해명하고자 한다. 여기서 미학적 체계는 다양한 영역들의 총체성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다.

이런 칸트의 사상을 이어받은 셸링과 헤겔 등의 독일관념론자들은 칸트 사상을 주관과 객관의 '동일성'[2]의 문제상황에서 받아들인다. 주관은 자신을 축발하는 객관에로 점점 다가가며, 객관적 세계 안에서 추론된 진리는 주관과 객관이 상호 관계 속에서 만들어가는 관계의 전체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주관영역과 객관영역의 구분 안에서 형성되는 이런 일치점들은 진리의 구조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총체성의 이념에로 이끈다.[3] 딜타이 철학에서도 진리는 이렇게 인간 자의식의 구체적 총체성 안에서 나타나며, 진리와 동일한 구조를 지닌 미학이나 과학 역시 이런 총체성에서 그 절대성을 가진다.

VI, 1960. S. 268.

2) 여기서의 '동일성'은 '동일성1과 비동일성의 동일성2'라는 표현에서의 동일성1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양자를 포괄하는 동일성2는 비동일성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Howard P. Kainz, 이명준 역, 『헤겔 철학의 현대성 *Paradox, Dialectic and System*』, 문학과 지성사, 1998, pp. 48-49.

3) Hegel, *Wissenschaft der Logik*, Hamburg. S. 278.

2. 칸트『판단력 비판』과 독일관념론의 세계체계 인식

칸트는 지성을 법칙의 능력이라 설명한다. 지성은 법칙을 통해서 자신의 인식능력을 행사한다. 반면에 이성은 이념의 능력으로서 추리나 유추를 통해서 대상과 간접적으로 관계하는 능력이다. 지성과 이성 사이에 칸트는 제 3의 인식능력으로서 판단력을 위치시킨다. 칸트와 동일하게 딜타이 역시 판단력 일반을 "법칙 아래 포섭하는 능력", 즉 특수를 보편 아래에 포섭된 것으로서 사유하는 능력이라고 규정한다.[4] 보편이 주어져 있는 경우, 특수를 이 보편 아래에 포섭하는 판단력은 규정적 판단력(bestimmende Urteilskraft)이다. 인식판단에서 규정적 판단력은 지성의 법칙 아래 직관의 다양성을 포섭한다.

판단력이 가지는 법칙의 보편성과 사례의 특수에로의 제한성은 단지 논리학자뿐만 아니라 선험철학자들에게도 주목할 만한 것이며, 여기에 판단력이란 인식능력이 지닌 고유한 특성이 놓여 있다. 분명히 미적 판단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거대한 자연에 대한 '경외'처럼, 학문적 이론이 가지고 있는 보편명제들과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미적 판단의 경우에도 보편적 타당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지성 개념을 통한 사물들의 이러한 종합은, 상상력의 도움으로 일반적으로 보편타당한 법칙에 따라 발생한다. 물론 규정적 판단력의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규정적 판단력은 지성에 의해 '이미 주어진' 법

4) Dilthey, *Grundlegung der Wissenschaften vom Menschen, der Gesellschaft und der Geschichte*, GS XIX, 1960. S. 14.

칙 아래 대상들을 포섭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직 특수만이 주어져 있고 판단력이 스스로 일반적 보편을 찾아 특수를 그 아래에 포섭해야 할 경우, 이런 판단력은 반성적 판단력(reflektierende Urteilskraft)이라 부른다. 규정적 판단력과는 달리 반성적 판단력은 대상들을 포섭할 법칙을 스스로 찾아야 하며, 그 스스로 법칙을 찾는 한에서, 서로 모순될 수 있는 이성의 준칙들(Maximen)을 부여하도록 강제된다.[5)]

반성적 판단력에 따르면 자연은 마치 경험적 법칙에 따라 다양한 것들이 지성에 의해 하나로 통합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여기에 독일 관념론의 체계 이론의 핵심이 놓여 있다. 자연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로 생각될 수 있으며 그렇게 생각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유기체는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목적 아래 놓인 것처럼 부분과 전체들이 이루는 상호 관계인 유기체 구조는, 자연의 전 체계가 기계적인 인과론이 아니라 목적론에 기초를 두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리고 개별적이고 특수한 법칙들은 일반적인 자연목적과 연결되는데, 이는 다시 말해 자연의 다양성은 개별적인 자의식과 함께 총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은 이런 합목적성 개념에 따라, 마치 지성이 경험적 법칙의 다양성의 통일을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상상된다."[6)]

헤겔도 역시 하나의 개체나 개별적인 현상이 처음의 모습을 스스로 벗어나, 자연의 전체로 그 모습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을 설명한다. 이때 생기는 의문은 어떤 영역에서 이런 개체성이 만들어

---

5) Dilthey, *Die giestige Welt*. GS V, 1960. S. 398.
6) Kant, *KdU*., BXXVII.I

지는가 하는 것이다. 개체성은 그것이 속하고, 그 안에서 현실화되는 공동체에 의해서만 정의될 수 있다.[7] 게다가 계속 상승하여 가는 연속선상에서 개념들이 결정되며 이렇게 하여 완전한 보편성으로 이행해 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개체성이란 이미 완전한 다양성으로 생각되며, 그런 다양한 개체들의 구성 안에서 보편적인 유기적 원칙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생리학으로 심리학을 설명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개체성은 각각 작은 전체이지만, 보다 보편적인 것과의 관계를 항상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개체성의 자기정립은 전체나 다른 개체성과 대립하여 형성되는, 서로 다른 단계나 등급을 동시에 스스로 가지고 있다.[8]

선험철학의 고유성이 지성의 범주 안에서 주어지는 법칙의 한계를 벗어나서 선천적인 적용가능성의 문제를 다루는데 놓여 있다면, 여기서 핵심은 판단력이 법칙을 세우거나 찾는 것 뿐 아니라, 지성과 이성에 의해 그것들이 교환작용을 할 때 그 관계를 발견하는데 놓여 있다. 이런 이유에서 칸트는 그의 『판단력 비판』에서, 이 반성적 판단을 다시 미적 판단력과 목적론적 판단으로 구분한다. 반성적 판단력은 규정하는 인식판단이 아니기에, 낯선 법칙에 종속하지도 않으며, 또 그런 법칙 아래 대상들을 포섭하려 하지도 않는다. 다시 말해, 우리가 미적으로 판단할 때, 우리는 어떤 특정한 이론이나 실천법칙과 같은 포괄적 법칙 아래 종속해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일반적인 이성 개념의 요청에 의해, 수용성과 자발성 사이에서, 즉 상상력과 지성 또는 이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법칙적

---

7) Dilthey, *Die Jugendgeschichte Hegels und andere Abhandlungen zur Geschichte des deutschen Idealismus.* GS IV, 1960. S. 51.

8) Hegel, *Phänomenologie des Geistes*, Hamburg 1988. S. 167.

놀이에 들어가게 된다.[9] 딜타이는 "『판단력 비판』에서 칸트는 감각적인 자연 질서와 지성적인 자유의 세계 사이에서 조화를 발견했다. 이는 다시 말해 예술작품과 유기체적인 세계는 단순한 자연이나 이념으로 정리되거나 현상으로 드러나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조화는 우리가 이를 개념화하지는 않지만, 이념의 종합이 내포되어 있는 합목적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10]고 설명한다.

합목적성의 원칙은 반성의 주관적인 법칙으로 다양한 현상형식들을 정리하기 위한 원칙이다. 그러나 또한 이에 따라 자연의 객관적인 합목적성에 대해서도 논할 수 있다.[11] 그렇기에 이 합목적성은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근본규범의 법칙성의 측면을 가지고 있으므로 '객관적'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객관적인 합목적성은 우리의 경험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정된 경험에서 발생하며, 자연 안에서 내적 목적과 인과성의 유비에 따른 목적개념에서 발생하는 것이다.[12]

칸트에게 '체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생각해보자. 칸트에게서도 자연목적이란 필연성과 자유를 반성적인 판단력을 통해 하나로 묶어 연결하려는 시도이다. 이는 사물을 인식하려는 요구에 아주 딱 맞아떨어지듯이 유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치 … 인 것처럼 als ob'의 틀 안에 이러한 통일을 남겨두는 것이기도 하다.[13] 규정적으로 정해진 법칙이 없다는 것은 개념 자체의 형식이

9) Gander, H., *Positivismus als Metaphysik*., 1988. S. 109.
10) Dilthey, *Leben Schleiermachers.* GS XIII, S. 132.
11) Kant, *KdU*., § 61 참조.
12) Kant, *KdU*., B267, B268
13) Kant, *KdU*., BXXVII.I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반성적 판단력은 범주로써 포섭되지 않은 주어진 것들을 부분 안에서 전체를 나누는 식으로 포섭하는 것이다.

칸트는 이념이란 말로 다양한 인식의 체계적 통일을 이해한다. 이는 다양성의 범위뿐만 아니라 선천적으로 정해진 부분에 따른 전체의 형식으로서 이성개념이 가지는 특징이다. 이런 목적론적 사유방식은 모든 연역을 이끌어내는 체계적인 분류를 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법칙을 발견해내는(heuristisch) 역할도 수행한다. 칸트는 사람들에게 사물의 쓸모 있음과 다른 생물에 대한 유익함에 대해 말한다. 칸트에 따르면 다른 생물들에게는 항상 유기체로 그려지는 것처럼 상대적인 합목적성은 다른 생물들을 위한 도구로 항상 기능하는 것을 의미한다.[14]

딜타이 역시 세계의 여러 사물들을 목적에 따라 통일한다는 것은 모든 부분과 이들을 모두 통합하는 이념에 관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것은 각각의 것을 모두 우연적인 관계맺음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기계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유기체적인 세계는 마치 하나의 우연적인 사건으로 나타난다. "이런 우연은 필연성의 제거로 나타나며, 이는 자연과학에서 인식의 의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5] 자연은 단순한 기계적인 사고나 수천가지 다른 가능한 부분들의 조합으로 선택 가능한 것인지, 부분의 총합으로 우연적으로 선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목적에 따른 인과성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통찰할 수 없다.[16] 그렇기에 이런 우연한 세계의 체계구조는 목적을 이루기 위

14) Kant., *KrV.*, B860/61.

15) Dilthey, *Leben Schleiermachers.* XIV-1, S. 370.

한 '아주 높은 단계의 우연성'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칸트의 『판단력비판』에 담겨있는 자연철학의 체계는 셸링의 선험적 관념론에도 자연철학과 관련하여 담겨 있다. 셸링 역시 기계론적 자연과 합목적적인 자연의 고차원적인 통합의 문제에 부딪힌다. 칸트에게서 셸링은 스스로 조직하는 능력을 가진 자연의 본질적인 측면이 담고 있는 규정에 주목한다. 셸링은 이를 "생산원칙에 따른 체계"[17]로 이해하며 칸트의 형이상학적 자연철학의 출발근원들을 역동적인 과정의 모범으로 생각한다. 이런 유기체론은 그런 까닭에 유기체를 스스로 상호교환가능한 원인과 결과에 의한 하나의 사물 자체로 파악한다. 이런 종류의 더 고차원적인 유기론에 따르면 유기체는 외적인 영향들에 의해 간접적으로가 아니라 바로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나의 전체로 파악된 유기체는 스스로 외부의 영향을 전하는 매개체이어야만 한다. 이 말은 의미하는 바는 "유기체는 고유한 객체이며 이는 그 스스로 주관이자 객관이 되는 것이다."[18] 이러한 유기체적인 자연의 주관과 객관 규정에 주목한 셸링의 사유는 정신과학의 범위를 넓히고자 한 딜타이의 이론과도 맞닿아 있다. 셸링이 생각하기에 "살아있는 생명체를 파악할 때, 바탕에 두어야 하는 주개념들은 부분적으로 그 스스로에 의해 준비되는 필연적인 관계가 스스로 생겨나는 것을 피할 수 없으며, 부분적으로 외부의 영향을 받고 외부의 제한을

16) Dilthey, *Weltanschauung und Analyse des Menschen seit Renaissance und Reformation*. GS II, S. 347.

17) 셸링의 자연철학과 관련해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W. Szilasi : Schellings Beitrag zur Philosophie des Lebens, in: W. Szilasi, Philosophie und Naturwissenschaft, 1961. S. 52-59,

18) Dilthey, *Studien zur Geschichte des deutschen Geistes*. GS III, S. 145.

받아들여야 하지만, 기계론적으로 외부에서 생성되거나 가져와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있다."[19]

이렇게 객관적 관념론의 철학은, 딜타이가 말하듯, 셸링 이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 17세기와 18세기의 독일 관념론이 이룬 체계는 현실성의 정의에 대한 인식과 자의식이 그 바탕에 놓여 있다. 이런 체계는 인간의 감정능력들의 총체성에서 나온 것이다. 왜냐하면 "그 요소들과 진리들은 지성적인 종합 안에 부분적으로 녹아들어있기 때문이며 이는 인간의 정신을 자극하기 때문이다."[20] 정신의 자기사고라는 점에서 철학적 성격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세계와의 관계가 다루어지는 목적론의 사고가 새로이 들어서게 된다. 이처럼 목적론적인 관점은 목적을 가진 각각의 의식이 지닌 유효성이 상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하며 또한 이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 까닭에 도덕적 세계의 확고한 기반들인 합법성, 정당성, 신용, 진리성들이 형성된다.[21] 활력과, 욕구만족, 행복 등이 결과하는 종합의 특징은 목적론적이라 할 수 있다. "부분적인 것이 구조 안에서 결합되어 있는 한, 이 결합은 욕구만족과 행복을 가져오며, 고통을 피하려 하는데, 이를 우리는 합목적론적이라 말한다."[22]

---

19) Schelling, *Fragment zur „Metamorphose der Pflanzen"* von 1790, dieses Fragments, Naturwissenschaftliche Schriften, II. Teil der Artemis-Aufgabe, 1952. S. 60,

20) Dilthey, *Die geistige Welt*. GS V, S. 5.

21) 칸트가 파악한 종교와 도덕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박진, 「이성과 신앙」,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56호, 2009, pp. 103-132.

22) Ibid. GS V, S. 207.

셸링철학에서 유기체적인 자연에서 근원하는 것은 무기체적인 자연에 근원이 있다는 것에 대응한다. 유기체적인 체계를 논할 때, 인간 활동에서 상대적인 의미들이 서술된다. 왜냐하면 행동과 삶의 가치는 결과적으로 가장 높은 가치의 매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동물이나 인간의 영혼 안에서의 합목적성은 항상 더 높은 진화의 가능성을 제공하게 된다. 각 종들과 생물계에서 유기체의 진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론적인 종합은 인간의 삶이나 사회, 역사에서 합목적적인 원천을 포함하기에 이른다."[23] 이런 목적원칙은 학문적인 의식의 원칙으로서 방법론적이긴 하지만 지속적인 타당성을 가진다. 왜냐하면 문제되는 사안과 관련된 원칙에 대한 연구대상은 개별적으로는 수학적이고 기계적인 것으로 드러나지만, 종합적인 근원원칙들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법칙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칸트의 철학은 우주의 자연철학의 총합을 통해 인간세계의 마지막 깊은 경험까지 나아가 도덕적인 인간의 본성과 이념을 발견하려는데 그 근본의도가 있다.[24] "자연이나 윤리의 법칙이 실제로 드러나는 것은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향할 때이다. 이는 서로 대립되는 것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

23) Dilthey, *Die giestige Welt. Einleitung in die Philosophie des Lebens*. GS VI, S. 63.

24) 한나 아렌트가 칸트의 목적론적 사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보다 확장된 사고방법으로 딜타이의 해석학과 연관시킨 저작은 다음을 참조. 공통감각의 이해와 도덕적 영역으로의 확장을 위해 한나 아렌트 역시 딜타이처럼 칸트의 반성적 판단력의 내용을 세계 해석의 근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Dag Javier Opstaele, *Politik, Geist und Kritik: eine hermeneutische Rekonstruktion von Hannah Arendts Philosophiebegriff,* Königshausen & Neumann, 1999. S. 149.

제에 해답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25] 이것을 셸링은 이미 정해진 조화로 나타내며, 반성적인 제한이 아니라, 필연성과 자유를 동일시함으로써 그 토대를 마련한다.[26] 이런 셸링의 체계 역시 칸트의 사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주관적인 관계는, 『판단력 비판』에 따르면,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자연에까지 미칠 수 있다. "칸트에게 자연과학은 동시에 경험과학일 뿐만 아니라 현실성의 학문으로 명명될 수 있는데, 이는 오늘날에도 자연과학이 좁은 의미로 해석되거나, 근대의 영역구축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동시에 의미한다."[27]

칸트의 체계는 그 이전의 형이상학적인 체계로부터 그 이후 독일 관념론자나 딜타이까지 이어져 온 3가지 근본이념을 담고 있다. 첫 번째는 자연 사물을 지배하는 무의식적이고 의식적인 본질에 관한 법칙들로, 이것은 데카르트로부터 이어져 온 것이고, 두 번째는 자연 사물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모든 사물을 새로이 재구성하는 스피노자의 체계와 맞닿아 있다. 세 번째는 앞의 두 가지를 총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서, 몸에서 정신으로까지 고양되는 단계를 합목적적인 세계질서에 의해 통일시키는 라이프니츠의 철학이 그것이다.

---

25) Gander H.H., *Positivismus als Metaphysik*, S. 109.

26) 셸링의 자연개념과 칸트의 판단력 비판의 차이점이나 청년 셸링의 자연철학에 관한 논박들은 다음의 책을 참조. K. Düsing: *Teleologie der Natur. Eine Kant-Interpretation mit Ausblicken auf Schelling, Natur und Subjektivität. Zur Auseinandersetzung mit der Naturphilosophie des jungen Schelling,* hg. R. Heckmann/H. Krings/R.W. Meyer. Stuttgart-Bad Cannstatt 1985, S. 187-210.

27) Gander, *PaM.*, S. 109.

칸트가 정의한 대로 판단력은 일반적인 법칙과 판단의 준칙들, 그리고 자의식의 다양한 관찰방법들과 간접적으로 관계한다. 이처럼 칸트의 『판단력비판』은 독일관념론에서 선험적이고 형이상학적이며 사변적인 시대를 넘어서는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하며, 딜타이 역시 이런 특성에 상응하게 독일관념론을 받아들이면서 부분과 전체의 관계가 가지는 목적론적 체계에 대해 말하고 있다.[28]

3. 딜타이의 칸트 목적론 수용과 극복

딜타이는 칸트의 판단력에 대한 이론이 '자의식'에 관계되는 심리학적인 재구성을 통해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반복된다고 주장하면서 칸트의 이론을 넘어서고자 한다. 칸트의 선험철학에서 반성하는 판단력이 자연의 연결고리에 대해 파악하는 것처럼, 이성과 이성개념을 통해 우리는 자연체계 전체를 측정하고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딜타이가 생각하기에 이런 목적론은 단순히 칸트적인 '마치 … 인 것처럼(als ob)'이라는 단순한 가정적인 체계로 돌아가지 않는다. 다시 말해, 딜타이의 유기론 개념에 따른다면, 이성적인 자유의 의지로서 자연을 바라보며, 일반적으로 궁극목적이라는 의미를 위해 의지에서 시작하는 자의식의 능력과 더불어서만 목적론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셸링과 딜타이가 공통으로 인식한 것인데, 자연을 바라보고 파악하는 해석학적 태도, 이런 학문적 행위 자체가 합목적적인 유기체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의식

28) Dilthey, *Pädagigik. Geschichte und Grundlinien des Systems.* GS IX, S. 182.

과 더불어' 파악되기 때문이다.

목적은 이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인 동시에 하나의 내적인 원인 으로 과거에 이미 잠재되어 있다. "이런 목적 개념은 더욱 발전된 개념들로, 핵심적이고 시원적인 힘일 뿐만 아니라, 나누어질 수 없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29] 그리고 이런 목적 개념은 자연의 물질 안에서 목적이란 두 상반된 원인들을 묶어주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 합목적성의 개념은 어디에서 유래하는 것일까? 우리는 우리 안에 스스로 있는 목적 자체에 따라 이를 경험하게 된다. 예술작품이나 기계들에서 우리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의 지성을 경험한다. 그리고 역시 유기체들안에서도 다른 어떤 것일 수 없는 목적에 따른 하나의 본질로서 이를 경험하게 된다."[30] 왜냐하면 『판단력비판』은 철학체계에서 세계와 자연의 통합을 추구하며, 딜타이는 이런 "이분법적으로 언제나 연결되어 있는 주관과 객관의 나뉨이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지각에도 유효하다"[31]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의식 안에 주어진 존재를 딜타이는 '알아채기 Innewerden'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이 '알아채기'라는 용어는 딜타이 사상에서 경험이란 말로 변화되어 보다 포괄적으로 쓰이며, 의식에 주어진 것을 생각, 느낌, 의지, 행동, 내용 등등까지 다양한 형태로 구분하여 쓰고 있다.[32] 딜타이에 따르면 해석학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

29) Dilthey, *Grundlegung der Wissenscahften vom Menschen, der Gesellscahft und der Geschichte*. GS XIX, S. 379.

30) Dilthey, *Loigik und System der philosphischen Wissenschaaften.* GS XX, S. 119.

31) Dilthey, Grundlegung der Wissenschaften vom Menschen, der Gesellschaft und der Geschichte. GS XIX, S. XXXV.

32) Ibid. S. 91.

실제로 객관적인 정확성이 필요하며, 지식은 주관적인 영역을 벗어나 다루어져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객관적인 현상들이 주어져야 하는데, 사실 이런 객관적인 사물들은 우리의 의식 안에 이미 있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딜타이는 독일관념론에서 이어져온 주객 관계를 받아들이면서, 모든 자연에 대한 설명과 묘사가 의식에 관한 이론이기에, 자연을 설명하는 것과 자연묘사 사이에는 어떠한 간격도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런 자연묘사는 '자기의식'의 목적에 의해 정리되고 자연 설명이 이를 확증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자의식의 체계적인 성격은 합목적성의 이념이 보여주는 것처럼, 반성적 판단력에 나타난 자연의 관점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칸트를 넘어서 해석학이 보다 더 의미 있는 작업이 되기 위해서 딜타이는 자연을 인식하고자 하는 학문적 계획이 중요하다고 말한다.[33] 딜타이가 생각하기에, 이런 자연을 파악한다는 의미는 반성적인 '주관과 객관의 분리'를 의식이 가진 노력의 결과물로 받아들을 때 유효한 것이다. 다시 말해 주객의 분리는 존재가 드러남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며, '자의식에 의해' 스스로 반성된 주관과 객관의 관계 안에서 존재는 드러나며 그와 동시에 인과론적인 현실성을 가지게 된다.[34] 이 인과성은 엄밀함의 관점에서 인식하는 주관 안에 감추어져 있는 실제적인 증거를 내포하며, 이 증거는 이후에 객관적인 것으로 드러난다. 즉, 칸트의 체계 안에서 법칙을 만드는 순수한 지성개념만이 가지는 인과성은 경험적으로 '만약

33) Dilthey, W*eltanschaungslehre. Abhandlungen zur Philosophie der Philosophie,* GS VIII, 1960. S. 174.

34) Dilthey: *Psychologie.* GS XXII, S. 43.

그렇다면 그 경우에 Wenn-dann'로 여겨지는 필연성이라는 법칙적인 연속 아래, '자의식'이라는 현실성의 내적이자 주관적인 요소가 첨부된다는 의미에서 경험적이라 할 수 있다.[35] 예를 들어 역사 세계에서는 스스로 자율적인 다양한 하부체계들이 모여 항상 영속적이지만 제한적인 목적을 이루며 현실화된다. 이런 각각의 하부체계들은 개별적으로 이해되고 또 이해되어야 하는데, 특히 역사가가 자신의 의식적 체계에 따라 보다 상위의 종합을 구성하고 구조적인 전체로 묶는 것처럼,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세계의 종합이라는 의미에 따라 부분적인 의미가 형성된다."[36] 이렇게 '어떤 사물에 대한 의식'은 딜타이에게 생철학의 개념을 의미하며, 이는 개인들의 심리학적인 행동의 단계를 드러냄과 동시에 내적이며 외적으로 지각함으로써 실재성을 형성하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

유기체를 합목적론적으로 파악하는 사고방식에서 칸트와 딜타이는 서로 일치하며, 이는 우리의 세계 이미지 형성에 관여하는 현실성의 인식을 목적종합의 단계로, 즉 목적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에서 드러난다. "목적론적인 종합은 유기체적인 본질의 영역에서 작용의 상승을 나타낸다."[37] 각각 개별적인 유기체는 전체 자연 안에서 합목적론적인 자연으로서 우리의 판단력을 통해 측정가능한 것으로 입증된다. 유기체화된 본질은 자연 안에서 유일한 것으로 동시에 목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실천적이고 객관적인 자연의 목적은 선천적으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35) Gander, H. H., *Positivismus als Metaphysik*, 1988. S. 114.

36) Hans-Ulrich Lessing, *Die Idee einer Kritik der historischen Vernunft. Wilhelm Diltheys erkenntnistheoretisch-logisch-methodologische Grundlegung der Geisteswissenschaften.* Alber, Freiburg/München, 1984. S. 275.

37) Dilthey, *Einleitung in die Geisteswissenschaften*. GS I, S. 228.

는 점에서 목적의 개념은 그 의미를 지닌다.[38] 학문의 방법과 그 전제들은 자연을 구성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자연을 조화롭게 만드는 원칙으로 관찰된다. 칸트는 이런 목적론적인 근거들은 현실적인 원인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규제하는 원칙들이라고 말한다. 이론철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규제적 이념은 학문이론의 영역을 벗어나 곳에서도 이성 이념의 타당성을 입증해준다.[39]

딜타이가 생각하기에 학문들이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시작하는지는 단순히 기계적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그렇기에 모든 사물들도 기계적으로도 판단될 수는 없다. "정신과학의 목적인 개인과 사회구성원들을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현실성으로 파악하고자 하고, 선행구조인 목적과 법칙 같은 형식들을 확정하고, 그런 사회-역사 구조 안에서 영향을 주는 형식들을 인식하고자 하는 것은, 사고의 인위적인 포착을 통해서만, 즉 분석과 추상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40]

사실 우리는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전체에서 부분을 연역하고자 할 때, 우리가 가진 개념적 도구가 우리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우리의 이성이 다른 어떤 설명방식도 불가능하다고 가정하여, 새롭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다시 말해 종교든, 형이상학이든, 도덕이든, 미학적 방식이든 필요불가결한 질문을 완전히 통합해서 결과를 만들어 내거나 서로를

---

38) Kant, *KdU*,. § 65. B296.

39) Dilthey, *Die giestige Welt. Einleitung in die Philosophie des Lebens*. GS VI, S.63.

40) Dilthey, *Einleitung in die Geisteswissenschaften*, GS I, S. 27.

연결하기 위해 학문은 항상 같은 사고지점에서 '비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에서 유기체론은 자연과학의 해석 도구일 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이나 연구 진행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런 이유에서 딜타이는 정신과학에서 "의식과 같이 형성된 유기체" 또는 "의식의 측면에서의 현실성"[41]과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딜타이에게 "어떤 불명확한 것들에서, 현상들이 그 영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어떤 작용을 통해 현상에 이룰 수 있으며 파악할 수 있을 지를 말하게 되는 출발점"[42]이 된다. 딜타이는 자신의 학문적인 목적과 계획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규제적인 이념에로 향한다. 이처럼 한계를 정하는 것은 딜타이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체계적인 자연인식을 위해 객관적 경험과 마찬가지로 목적론적인 반성을 통합함으로써, 자연과학과 철학은 이론과 실천 이성으로 묶여지는 공통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근대 이래로 철학은 과학의 속박 아래 있으며 과학에 의해 철학의 주제들이 주어진다고 할 수 있다. 과학의 전체적인 면은 단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과학은 사물과 인간의 의식이라는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며 여기서 과학의 결론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역사적인 이성 비판에 의해서만 사회역사적인 현실성은 그 대상을 가진다. 이런 관점에서 딜타이는 전체 과학을 정신과학이란 이름으로 정리한다. 학문의 개념은 자연과학에 맞서 이런 전

41) Dilthey, *Logik und System der philosophischen Wissenscahften*, GS XX. S. 252.

42) Dilthey, *Grundlegung der Wissenschaften vom Menschen.* GS XIX. S. 1.f.

체를 어떻게 한계 지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존재하며 따라서 그 스스로 지식을 전달할 수도 논증적인 형식을 가질 수도 있다.

딜타이는 이런 유기적인 자연과학적 연구가 뉴턴의 자연과학에서 커다란 수확을 걷을 수 있었다고 확신한다. 근대의 자연과학이나 정신과학적인 방법은 베이컨부터 칸트에까지 분석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확정되며, 18세기 뉴턴의 과학방법론까지 한 시대를 풍미하게 된다. 칸트도 역시 기계적으로 간주되는 수학적인 방법을 형이상학적인 대상들에 즐겨 적용한다. "칸트는 이미 가능한 경험들의 영역에로 이런 학문들을 제한하였고, 어떻게 형이상학에서 아직 이런 방식이 쓰이지 않았는지를 설명하려한다. 형이상학의 대상들은 독일의 계몽적 세계관의 이론적인 전체 주춧돌이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거부해야 한다."[43] 칸트는 이처럼 고유한 존재의 문제인 자아라는 주관과 세계라는 객관의 관계를 다룰 때, 『판단력비판』에 의해 발견한 관계로 이를 정리한다. 딜타이는 주관과 객관의 분열을 보다 근원적으로 나누며, 이를 단지 외적일 뿐만 아니라 내적인 지각 사이의 대비로 보아서는 안 되다고 강조한다. 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딜타이에게 생철학의 핵심개념을 형성하는 것이며 이는 개인적으로 심리학적 상태와 내면에서 외면을 지각하며 현실성에 근원을 둔 결과들을 드러내는 것이다.

유기체론과 관련해서 딜타이는 자연을 파악하는 것이 단순히 설명을 위한 원칙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야 함을 강조한다. 학문에서 딜타이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파악할 수 있고, 파악한 한정된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다. 바로 이런

43) Dilthey, *Studien zur Geschichte des deutschen Geistes*, GS III, S. 136.

이유에서 학문은 인간 본성의 총체성과 관계하는 것이며, 단순히 인간이 가진 지성에 의한 일면적인 학문이어서는 안 된다. 딜타이는 먼저 정신과학의 근본문제를 기술심리학적인 문제로 극복하려 시도한다. "자아와 자의식은 개체의 삶의 형식이고 한정된 유기체의 연결 안에서 정신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하나의 과정으로서 삶은 신체적인 유기체이자 자의식에 의한 내적인 과정들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가진다."[44]

딜타이가 바라본 것처럼, 근대 과학과 같은 학문을 포괄하려는 학문적 도약은 오랜 전통에 기반을 둔 해석학만 가지고서는 충분한 결실을 맺기 어렵다. 따라서 학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방식대로 정신적인 사실의 새로운 총괄이 필요하다. 딜타이가 과학 다음으로 주목하는 것은 역사철학의 관점이 이런 유기체의 발전과정과 닮아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역사와 세계사가 유기체적인 일반 범주에 속한다는 점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역사와 예술은 자연과학의 관점에서도 현실성을 가지며 개체가 가진 한정된 시각을 넘어서 있는 것이다. 독일 관념론의 미학이론들과 개념의 경우에도 미학적인 논쟁은 살아있는 정리들을 가지며 미학적 반성은 고차의 것으로 변형될 수 있다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학문은 사상의 세계를 각각의 경험과 입장에서 구축해나가는 것이라고 딜타이에 따라 정의한다면, 학문적 연구가 진행되면 될수록 그 전에 감추어진 총체성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딜타이가 말하는 각각의 학문들은 총체성이나 직접적으로 경험한 현상들의

---

44) Dilthey, *Leben Schleiermachers*, GS XIV, S. 539.

연속들을 한정된 개념들에 의해 형성하는 것이다. "이런 유기체의 세계 안에 그리고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영역들에 영혼의 삶이 들어서게 된다. 이런 진입은 자연인식을 반박하는 수단으로서도 큰 수수께끼라 할 것이다."[45]

딜타이의 의도는 사회적이나 역사적인 사건들을 최종적인 방향성 아래서 모든 인간들이 가진 의미에서 이끌어내고자 한 것이다. "인간 이성의 친밀함은 이성적인 전체 세계를 우리의 모든 사고와 행위에 바탕에 두는 것이다."[46] 이처럼 유기론은 운동의 생명성을 나타낸다는 자연의 이념은 딜타이에 의해 학문인식방법으로서, 유기론적, 역학적, 기계론적 자연과학으로 새롭게 정의된다. "만약 우리가 세계전체의 통일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세계 유기체 개념과 직면한다. 이 개념 안에 의식의 단계 안에 있는 이성에 대응하여 단계적인 형태로 자연이 있다."[47] 이런 개별성과 유기체의 인과성의 과제는 끝없이 고찰하는 무한한 사고라는 과제를 남긴다. 이는 하나의 문제가 어떤 해결을 가져오지만, 절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유기체의 문제란 결코 끝나지 않는 총체성의 문제를 그 자체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딜타이에게 유기체가 가지는 체험은 의식에 의해 반성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인 생명체에 최초로 주어지는 체험 자체 속에 이미 그대로 함축되어 있다. 삶의 진행에 관한 우리의 견

---

45) Dilthey, *Zur Geistesgeschichte des 19. Jahrhunderts*. GS XXII, S. 323.

46) Dilthey, *Weltanschauung und Analyse des Menschen seit Renaissance und Reformation.* GS II, S. 7.

47) Dilthey, *Leben Schleiermachers*, GS XIV-1, S. 455.

해를 이루고 있는 구성부분들은 모두 삶 자체 속에 들어 있다. 우리는 이를 내적 시간성 혹은 역사성이라 부르는데, 이러한 시간성이나 역사성은 삶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 속에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예술작품은 작가의 정신적 내용과 무관한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 사실 진정으로 위대한 예술작품은 작가에 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 그 자체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다. 이러한 예술적 진실은 정신적이며 지속적이며 확고한 것이기에 정신과학의 풍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4. 나오며 - 새로운 해석학으로의 이어짐들

딜타이의 해석학을 우리는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법칙들을 가지고 보편타당하게 해석하여 총괄적인 법칙의 체계로 구축한 하나의 건물에 빗대어 말할 수 있다. 칸트가 말한 반성적인 판단력을 딜타이는 자신의 사상에서 과학과 역사, 심리학 등과 관계시키며 이를 특수와 보편의 관계 안에 포함되지 않는 의식적인 현실화 노력과도 결부시킨다. 또한 이런 인간이 가진 노력에 의해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윤리학을 이해하려는 의도도 가능하게 된다.[48] 딜타이는 독일 관념론을 다루면서 '학문적 토대'라는 일반적인 자의식 전반에 대한 부분과 개별적인 학문들이 가지는 심리학적 설명이라고 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사항을 구분한다.

---

48) Dilthey, *Kritik der historischen Vernunft*, S. 61,64 und 96-100. 1999.

해석학이 처음 등장한 그리스도교 초기의 해석학은 표현을 위한 해석의 전제로서 법칙과 이론을 필요로 했다. 이후 성경 해석이 지닌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근대 해석학은 또 다른 커다란 전제를 가진다. 왜냐하면 근대의 정신과학의 근저에는 '가장 높은 가치인 인간의 자의식'을 출발점으로 하는 해석학이라는 토대가 이미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49]

딜타이에게 있어서 '삶의 표현'이란 말은 인간의 내면적 삶의 각인을 반영하는 것이며, 인간 정신의 대상화 혹은 객관화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에 딜타이에게 체험이란 자의식에서 우러나온 창조물을 형성하는 토대로서, 역사적인 의식개념으로 이해된다. 자의식의 눈을 통한 삶의 개별 체험은 그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사실성이라는 차원으로 고양되며, 이는 다른 개인들의 삶의 체험들과 관계하고 세계 경험 전체로 확장되어 총체성을 지니게 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Dilthey, *Gesammelte Schriften*, Bd. I–XXIV, Stuttgart–Göttingen 1922 –72; ab Bd. XVI besorgt von Karlfreid Gründer(zit. GS I, …)

Kant, Immanuel, *Kritik der Urteilskragt*. Hamburg, Meiner Verlag 1998.

_____, *Kritik der reinen Vernunft*. Meiner Verlag 1998.

Schelling, Fr. W. J., *Ideen zu einer Philosophie der Natur als Einleitung*

49) Dilthey, W*eltanschauung und Analyse des Menschen seit Renaissance und Reformation,* GS II, S. 115. 1960.

in das Studium dieser Wissenschaft, 1797, II, 1–343.
_____, *Von der Weltseele, eine Hypothese der höheren Physik zur Erklärung des allgemeinen Organismus*, 1798, II, 345–583.
_____, *Ernster Entwurf eines Systems der Naturphilosophie,* 1799, III, 1–268.
_____, *Einleitung zu dem Entwurf eines Systems der Naturphilosophie* 1799, III, 269–326.
_____, *Über den wahren Begriff der Naturphilosophie und die richtige Art ihre Probleme aufzulösen,* 1801, IV, 79– 103.

2. 논문

박진, 「이성과 신앙」,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56호, 2009, pp. 103–132.

3. 단행본

Dag Javier Opstaele, *Politik, Geist und Kritik: eine hermeneutische Rekonstruktion von Hannah Arendts Philosophiebegriff,* Königshausen & Neumann, 1999.
Hans–Ulrich Lessing(Hg.): Wilhelm Dilthey, *Texte zur Kritik der histirischen Vernunft*. Göttingen
Hegel, G.W.F., *Wissenschaft der Logik*, Frankfurt a.M. 1986.
_____, Phänomenologie des Geistes, Hamburg 1988.
Howard P. Kainz, 이명준 역, 『헤겔 철학의 현대성 *Paradox, Dialectic and System*』, 문학과 지성사, 1998.
Gander, Hans–Helmuth, *Positivismus als Metaphysik*, Voraussetzungen und Grundstrukturen von Diltheys Grundlegung der Geisteswissenschaften. Freiburg/München, 1987
_____, *Selbstverständnis und Lebenswelt*, Grundzüge einer phänomenologischen Hermeneutik im Ausgang von Husserl und Heidegger. Frankfurt a/M 2001
Schiller, Friedrich, *Über die ästhetische Erziehung des Menschen*, Stuttgart

Reclam.
_____, *Kallias oder über die Schönheit*, Stuttgart Reclam.
Schleiermacher, Friedrich Daniel Ernst, *Ästhetik(1819/25). Über den Begriff der Kunst(1831/32)*, Hamburg 1984.
Szilasi W., *Schellings Beitrag zur Philosophie des Lebens*, in: W. Szilasi, Philosophie und Naturwissenschaft, S. 52–59, 1961.

(**투고일**: 2015. 7. 7 **심사완료일**: 2015. 8. 2 **게재확정일**: 2015. 8. 5)

손세훈
소속: 건국대 행정학과, 조선대 철학과
주소: 전북 익산시 부송동 우남콤비타운 101동 511호
전화번호: 010-3807-5303
전자우편: meoatom@hanmail.net

[Abstract]

Understanding and Reception of Kantian Philosophy in the Dilthey's Thoughts

Son, Se-Hoon

This study emerged from the study of Kantian philosophy and Dilthey's texts. A comparison between the Kantian philosophy and the literature of Dilthey shows that many considerations, especially in the field of natural philosophy and the theory of historical-religious world remained unconsidered. It is therefore tried to explain the problem of knowledge of the aesthetic world in a partly historical, partly ethical and social investigation. In trying to understand the individual through his connection with the whole, it is assumed that this whole thing is already known. On the other hand, the context of the whole should be opened up precisely by understanding individual aspects. Accordingly, there is so called a hermeneutic circle. The individual reveals itself from the whole, the whole of the individual. Already had that been formulated in the field of German Idealism as a totality-concept. Dilthey finds the German Idealism with the fact that the man from the given abundance of things can be ordered by prevailing ideas about the general concepts and universals in his thinking. They overlook the full and concrete unity of the individual and general to rise up and to realize in name of totality-concept as before announced synthesis. This means that to raise itself to the central principle of German idealism.

Key words: Kant, Dilthey, Schelling, Hegel, Philosophy of Nature, Totality-concept, Organism, Hermeneutics